

“연화제 성역화... 대학불교 변화·발전 기폭제 될 것”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대담

대학불교운동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와 고려대불교학생회교우회(이하 고불회교우회)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연화제 50주기를 열고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주제 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현 고불회 회장 정원식을 비롯해 고불회 교우회 대표로 법안 스님, 63학년 서상욱, 61학년 이재영 등 11명이 대담자로 참석했다. 대담의 화두는 연화제 역사를 되짚어 한국 대학불교 운동의 새로운 변혁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담을 요약 정리했다.

월정사=박이름 기자



고려대불교학생회와 고려대불교학생회교우회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연화제 50주기 행사를 열고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여 대학불교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사회자=지금부터 ‘대학불교운동과 연화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1963년 대불련 창립 이후 1년 뒤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가 창설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불교의 주축이었던 고불회가 1965년 7월 월정사 수련대회에 참가하던 중 상원사 참배를 다녀오다 급류에 쓸려 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를 기려서 매년 추모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50년째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연화제가 고불회 선배님들에 대한 추모 자리로만 유지돼 왔지만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화제를 돌아보고 현대판 청년 불자 운동의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길 바라며, 활발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자=창립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이재영=조계사에서 대불청 범회에 동참하던 때입니다. 청년회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절을 할 줄도 모르고 법회 수준이 매우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조계사에 있던 대학생들끼리 모여 62년도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서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63년 3~4월에 각 대학 불교학생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그 후 8월 6일자로 불교언론 등에 9월 중 창립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각 대학 불교학생회는 없었고 서울법대 법불학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다섯 명이 조계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조금 빨리 불교학생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다고 하니 도선사 정담 스님, 탄허 스님, 불국사 능가 스님, 법주사 추담 스님, 칠보사 석주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열면 큰스님들이 오셔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기꺼이 법회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자=참사 당시 사회적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서상욱=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굉장했습니다. 조계사에 마지막 시신이 들어설 적에는 경내가 모두 울음바다였고 저명한 분들도 조문을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자=고불회 사건으로 인해 이후 서클 활동이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이희경=1965년 한일협정남대시위로 대학생들이 발길을 돌려 대부분 대학 서클활동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68년 연등회가 재개돼 교우들과 함께 연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 달에 한번 스님들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도 스님인 능가 스님과 함께 지도 법사도 따로 두고 고불회 활동을 펼쳐오다 70년도에 수련대회를 재 개최했습니다.

△사회자=고불회 지도 법사 중에는 고승대덕들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영=창립 당시에는 도선사 정담 스님, 그 다음 탄허 스님, 능가 스님, 무진장 스님, 월주 스님, 종범 스님 등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고불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회자=서상욱 법우는 당시 연화제추진위원회 발족하셨는데, 당시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서상욱=7월에 사고가 난 후 제가 9월에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배들의 회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화제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66년도 7월 연화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연화제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식=1970년대 말부터 대학가에 민주화 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려대학 불교학생회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

들도 모두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때까지는 선배님들이 돌아가신 날자인 7월 7일을 지켜 제를 지내다 보니 평일인 경우 졸업생들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해마다 삼삼오오 아니면 혼자라도 연화제를 올리기 위해 월정사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6년도 입학한 후에는 혼자라도 와서 재를 모신 적도 있습니다. 제사 비용도 그 전에는 재학생들이 모여 마련했는데 민주화 운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과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에게 연락을 드려 심시일만 조금씩 돈을 지원받아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 매년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7월 7일을 고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공론이 모아져 7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주말에 연화제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자=탄허 스님과 고불회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옥화=탄허 스님께서 60년대부터 고불회와의 인연으로 월정사 수련대회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허 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출판본을 저희가 교정하기도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고불회가 대강연회를 열면 마다하지 않고 항상 찾아주셨습니다. 원래 탄허 스님이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정념 스님은 월정사 주지로 계신 만큼 연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50주기를 맞는 연화제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념 스님=저는 출가한 후 80년 초에 월정사에 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때 민주화 바람이 불어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했고 15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연화제에 대한 의식이 사중에 크게 미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정사에는 연화제가 있었습니. 연화제를 통해서 고불회 회원들이 수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연화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제의 존재로 사중 스님들도 항상 연

화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재양성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탄허 스님께서 특별히 고불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월정사와 고불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화제를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자=미디어보다 이학종 대표님은 연화제 30주기 때도 오셔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학종=너무 오래되어 자세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불회와 동문회의 열정과 열기가 다른 대학보다 남달랐다는 것은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30주기 때 참여한 고불회 회원들은 돌아가신 선배님 열 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불교의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사회자=현 고불회 회장 정원식 후배는 50주기에 상주를 맞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정원식=연화제에 세 번째 참석하는데 그동안 6~70학년 선배님들이 연화제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며 ‘모든 학교를 통틀어 졸업생 선배들이 행사를 함께 참석하고 애정을 가져주는 동아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끌어 오신 50주기에 재학생을 대표해 상주로 참석하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재학생들의 뜻을 모아 고불회를 더욱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법안 스님은 고려대 출신으로서 연화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 스님=고불회 활동을 한 것은 입학 후 잠깐일 뿐이지만 학생들의 구도 열정이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화제가 연화제를 중심으로 청년 불교 구도 정신을 이끄는 성지화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살신성인 하신 선배님들을 기리는 것 이상으로 한국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선

봉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곳이 월정사입니다. 주지 정념 스님께서도 연화제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추진이 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회자=법안 스님 말씀대로 대학불교, 청년 불교의 침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월정사는 대한민국 신행을 만드는 문수성지로서 50년간 고려대를 품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견에 주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념 스님=대학 불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고불련은 대학 불교 운동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월정사는 고불회의 열정과 지극한 원력이 알알이 빛나는 곳입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매해 동문들이 함께 모여 연화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를 넘어 한국 사회 흐름과 전반이 매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 동아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방향성을 새로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50주기 연화제에 참석한 고불회 동문들을 봐도 재학생 보다는 동문들이 더 많습니다. 회생자들과 함께 의로움으로 시대를 헤쳐나가고 여러 활동을 함께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겠지만 이제는 동문회만큼 재학생들의 참여도 이끌어야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며 선배들의 구도 열정을 다시금 새겨 재학생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전하고, 이 시대 대학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담 참가자
서상욱(63학년 정외과, 사고당시 수습지원단)/이재영(61학년 상경대/태고종 법안 스님(경제과 78학년)/최옥화(72학년 국문과)/이영찬(74학년 경영학과)/이동식(76학년 기계공학과)/정원식(현 고불회 회장 11학년)/이희경(68학년 통계학과)/이학종 미디어부대 대표/월정사 주지 정념 주지스님/사회자=이건식(심리학과 78학년)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정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정사 인등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